



부적지에 식재된 무궁화의 옮겨심기 등 정비

기본원칙

- ❖ 무궁화의 관리 주체는 소관 토지 내에 심겨 있는 무궁화 개체에 대한 생육상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기록 관리.
- ❖ 주변 수목의 생장으로 가려져서 생육공간이나 햇빛이 부족한 불량 개체는 생육 여건이 좋은 장소로 옮겨심기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 옮겨심기는 지역별 나무심기 적기를 고려하여 실행.



무궁화 관리기관은 무궁화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 관리하여, 산림청의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
 ※ 실태조사는 무궁화 꽃이 개화하고 주변 수목의 자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7~9월 중 실시.



주변 수목의 생장으로 햇빛이나 생육 공간 부족 등 생육여건이 불량하게 된 무궁화를 전수 조사하여 옮겨 심을 개체를 확정하고 기관별 자체 옮겨심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옮겨심기는 지역별 나무심기 적기를 고려하여 실행하되 적절한 이식 장소가 없는 기관은 관할 지자체의 나무은행, 기관 간 수목 분양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실행.



옮겨심기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수형이 양호한 개체만 남기고 솎아베기 등 정비작업 실행.



부적지에 식재되어 옮겨심기 등 정비가 필요한 대표사례

유형1



큰나무에 눌러 잘 자라지 못하는 사례

유형2



공원 후미진 구석에 식재된 사례

유형3



배수가 안되고 토질이 좋지 않은 곳에 식재된 사례



산림청

www.forest.go.kr

산림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나라꽃 위상에 맞게 귀하게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무궁화 식재 관리 방법



산림청

무궁화 식재 및 관리 기본원칙

식재장소 선정 기본원칙

- ❖ 나라꽃 위상에 걸맞게 귀하게 관리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심는다.
ex : 공원, 도시숲 등의 시설의 주(主)공간, 건물의 진입 및 전면부 등
- ❖ 연중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주변 수목이 성장 하더라도 그늘이 질 우려가 없는 곳에 심는다.
- ❖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잘되며 바람이 심하지 않은 곳으로 관리여건이 좋은 곳에 심는다.
- ❖ 일정 규격 이상의 수형이 양호한 묘목을 심는다.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해 시각적으로 중심이 되는 공간에 심는다.

▶ 청사 신축시 조경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무궁화 식재를 검토하고 이미 조성된 공간에 추가로 심는 경우 기존 조경수의 이식 후 식재도 적극 검토할 것.



독립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장을 고려하여 수관이 겹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묘목 :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다만 향후 묘목 성장으로 수관이 겹치는 경우 이식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성목 : 수목 중심간 최소 2m 이상 간격 유지.



연중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정하되 큰나무 아래나 주변 수목의 생장으로 그늘이 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반드시 피할 것.



제초,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관리 작업 여건이 양호하고 토양이 비옥하며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심는다.



심은 후 성장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관수가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실시한다.



녹지나 공원 등에 식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리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사후 관리 예산을 반드시 계상한다.



무궁화 묘목은 계통 또는 품종을 미리 확인하고 묘목이 생산된 지역을 확인 하여 심은 후 겨울철 동해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식재.

※ 품종은 꽃의 형태와 색깔 등을 고려해 자율 선택할 수 있으나 가급적 국내에서 육성된 단심계 홑꽃 식재 권장 (2014년 국립산림과학원 발간 “나라꽃 무궁화품종도감” 참조)



공공장소에 심는 무궁화는 최소한 수고 1.5m이상, 수관폭 0.6m 이상의 묘목 식재를 권장하며 너무 어린 묘목을 심지 않는다.
다만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무궁화 일반현황

■ 명칭

- 우리이름 : 무궁화
- 학명 : *Hibiscus syriacus L.*
- 영명 : Shrub Althea, Rose of Sharon



■ 주요특성

- 생육 특성
 - ▶ 수고 3~6m인 낙엽성 활엽의 소교목으로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陽樹)임.
 - ▶ 비옥, 적습한 토양을 좋아하나 토양 적응력은 강한 편이며 이식이 잘됨.
 - ▶ 맹아력이 강하고 어릴적 생장이 빠르며 내염성과 내공해성이 강함.
 - ▶ 자랄수록 겹가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개화 특성



무궁화의 당년지 개화 (아래쪽->위쪽)

- ▶ 대개 4월 중-하순 잎이 피기 시작하며 6월 초-중순 그 해 새로 난 가지의 잎겨드랑이쪽에 꽃봉오리 생성.
- ▶ 7월초부터 10월초까지 가지가 계속 자라면서 위쪽을 향해 듣는 잎의 겨드랑이마다 꽃을 피우는 습성이 있음.
- ▶ 꽃 한 송이의 수명은 홑꽃의 경우 12~15시간으로 아침에 피고저녁에 오므라들며, 한번 오므라든 꽃은 다시 피지 않고 그대로 시듦.
- 생리적 특성
 - ▶ 종자로 번식할 경우 어머니나무의 형질이 그대로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꺾꽂이나 접붙이기 등 영양번식 방법으로 육성된 우량 품종 묘목을 권장.

무궁화 제대로 가꾸기



정지전정 등 수형관리

▶ 가급적 강전정을 하지 말고 약전정이나 중전정 실시 권장.



비료주기

▶ 무궁화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력과 수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유기질비료 또는 복합 비료를 줌.

- 시기 : 보통 3월~4월초
- 양 : 5년생 미만은 그루당 퇴비 3~4kg, 5년생 이상은 퇴비 6kg



병충해 방제

▶ 진딧물 방제

1 가해시기 및 증상

- 5월 초순 ~ 6월 초순, 9월 초순~9월 하순까지 어린잎과 줄기, 꽃봉오리에서 즙액을 빨아 먹으며 피해를 입히고, 분비물로 인한 그을음병이 발생할수 있음.



2 방제법

- 다양한 약제가 시판되고 있어 발생 시기에 맞추어 살포하면 쉽게 방제가 가능.
- ▶ 내성(耐性)이 생기지 않도록 종류가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살포.
- 4월 초순 (필요시 9월 초순) 입제를 토양에 미리 살포하면 피해 예방 가능.



신초가해



그을음병 유발



입제 토양살포 (4월 초중순)

진딧물 피해 및 방제

진딧물은 심할 경우 보기 흉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하지만 치명적 해충이 아니며 방제 방법도 비교적 쉬운 편임.